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거나 듣고 기억하여 마음으로 그것을 잊거나, 잊어주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차츰 깊어지면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기 마련이다. 입으로 설하는 것만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전하기도 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간행하는 경우도 있다. 말재주나 글재주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行)을 통해 무언중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거룩함을 남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진리의 속성이 외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 모두를 '설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설법'이란 자신이 향상되고 자기를 구제하는 것(自利)에서부터, 나아가 남을 교화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利他)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그 공덕도 '독송'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꼭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을 세워서 나를 공양하거나 승방(僧坊)을 만들어 스님들을 공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 말은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즉 정성을 다한 마음에 어린 무형의 공양이 유형의 공양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최대의 공양은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信受) 실행하고 설해 넓히는 것에 의해, 자기 자신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을 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다음에 반드시 마음 속 깊이 새겨둘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침 속에는 나의 전신(全身)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리 등을 모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다면 '절도 무엇도 모두 필요 없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전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칫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왼쪽

해 넓히는 것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을 위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은교주(大恩教主)에 대해서, 또 부처님을 도와 오신 대보살들에게도 형태 있는 공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이 깊어지면 그것을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지 않아도 된다. 치료를 위해 약이나 자구(資具)를 보시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아지타여,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미 전생에서 나를 위해 사리공양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보로 만든 탑을 세웠으며 그들(부처님의 신체)이 살아 계시는 탑에 천상계와 인간계의 갖가지 물건을 바쳤으니, 꽃·향나무·향료·화환·유고(油膏)·향분·의복·산개(傘蓋)·깃발 등을 공양하고 갖가지 작은 북·큰북·아주·큰북 등을 울리고 여러 가지 노래·취주음(吹奏音)·타음(打音)·음의 억양 등을 울려서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노래와 춤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공양을 마친 사람들이다. 또한 불멸 후 이 법문을 기억하고 말해 들려주고 해설하고 문자화한다면 그것에 의해 이미 전생에서 승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멸 후에 이 법문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들려주고 설시(說示)하고 문자화시킨다면, 아지타여, 나는 나의 멸도 후에 그 사람은 유골탑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승가에 공양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재가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사리공양, 불탑의 건립, 출가 교단에 대한 승원, 그 밖의 보시 등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불멸 후의 <법화경> 창도자는 이미 전생에서 그것들을 마쳤으며 더욱이 그것에 의해 얻은 선근 공덕에 의한 과보의 향수(享受)를 모두 보류하고 <법화경> 창도를 위해 이 사바세계에 다시 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서 해야 할 일은 <법화경> 창도 이외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스님의  
**경전 읽기**  
법화경 ⑩ 분별공덕품 제17  
설법의 공덕



### 설법은 보살도 실천의 첫걸음

### 경전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뇌로만 생각하는 차가운 사람이며 감사라든가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교리에만 사로잡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미지의 뇌인 오른쪽 뇌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자들은 석존의 가르침 그 자체를 믿고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고 세상에 설

언제나 불전(佛前)을 장엄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며 갖가지의 행으로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스크리트어본 <법화경> '16장 북벽의 구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지타여, 그 선남자, 선여인 불멸 후의 법화경 창도자(唱導者)는 나를 위해 탑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비구를 위해 승원을 세우

지로 차별되게 나타나는 의식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은 언제나 차별이 없는 마음 그 자체이다. 차별되게 나타나는 의식이 물결이라면 차별 없는 마음은 물 그 자체이다.

물결을 선택하여 취하고 버려서 이 물결은 물이고 저 물결은 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의식에 어떤 물결이 일든 그 물결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마음 자체인 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의식의 깊숙한 곳에 못박아 두고서 매 순간 순간 기쁨을 맛보라. 그리하여 때가 되면 마음 스스로가 그 아픔의 부름에 답하여 나타나 아픔을 달래주고 편안하게 해 줄 것이다. 지치지 않는 관심과 애정으로 마음을 찾는 것이 공부의 첫째 조건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김태완·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화 인제  
부산 무심선원 매주 수·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정화) http://www.mindtree.net/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 앞에서 법을 듣는 의식만 있는 도인(道人)은 뚜렷하고도 분명하여 모자라거나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 없다고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알면 될 뿐, 잘못되거나 알을까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 각자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룸하여 살아있는 조사라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성품(性)과 모습(相)이 따로 있으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품과 모습이 따로 있지 않다.

번뇌를 어떻게 없앨 것이며, 보리를 어떻게 증득할 것인가? 번뇌를 번뇌로 여기고 보리를 보리로 여기는 한, 번뇌는 영원히 따라다니는 번뇌일 뿐이어서 없앨 수가 없고, 보리는 영원히 저 멀리 있는 보리여서 증득할 수가 없다.

무엇이든 첫단추가 중요하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결국 어긋나게 되어 있다. 처음부터 분별심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헤아려서 도를 찾는다면, 이것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것이며, 물결을 헤아려 물을 찾으려는 것이며, 꿈 속에서 꿈을 따져서 꿈을 깨어나려는 것과 같다.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⑤ 물결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미 찾고 있는 이것이 마음인 바에야 아무리 찾아도 달리 마음을 찾을 수는 없으며, 물 아닌 물결이 없는데 이 물결 저 물결을 나누어서 어떻게 다시 물을 찾겠으며, 꿈 속에서 아무리 꿈을 깨어나는 이야기를 해봐도 그러한 것이 바로 꿈일 뿐인 것이다.

### 번뇌·보리 분별할수록 '보리'는 멀어진다

그러므로 법을 찾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거나 옳고 그름을 나누는 버릇을 먼저 버려야 한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욕망을 가지든 어떤 동사를 취하든 어떤 의식이 흘러가든 한 순간도 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거나 이어짐이 없이, 모든 생각과 느낌과 욕망과 행위와 의식에서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어색한 표현이다. 마음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위나 욕망이나 의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대로 마음이고 느낌이 그대로 마음이고 행위가 그대로 마음이고 욕망이 그대로 마음이고 의식이 그대로 마음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 느낌, 욕망, 행위,

의식의 다양한 모양을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 모양들의 속에 변함 없이 깔려 있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은 평상시 의식으로 나타날 때 분별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찾고자 하여서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길은 오직 마음 스스로를 일깨우는 길 뿐이다. 여러 가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이공(理工)불이와 체용(體用)불이

과학은 자연 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공학은 주로 기계나 장치 또는 가공된 재료 등을 대상으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과학과 공학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순식간에 수반을 함유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렌지를 살펴보자. 이것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물의 특성 가운데 극성(极性)·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양전하와 음전하들이 각각 한쪽으로 치우쳐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성질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극성물질은 전기장 속에 놓이면 양(陽)전하쪽은 전기장의 양(陽)극쪽으

위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대학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수신문의 최근호에서 밝힌 2002년 신입교수 임용 경향을 살펴보면 순수과학(이학)·상반기 6.9%, 하반기 10.5%과 응용과학(공학, 의학)·상반기 44.2%, 하반기 41.3%의 심각한 불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없이 공학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공학의 발전 없이 과학만으로는 첨단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과학은 학문이고 공학은 학문이 아니라든가, 그래도 과학이 당장 돈이 되는가 하는 경계선에 의한 이분법적 접근 방식을 탈피해 '이공불이'의 정신을 살려 지혜롭게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으로 <무문관> 제44칙에 유일하게 한국 출신인 파초(芭蕉) 선사의 체용불이에 관한 화두 '파초주장(芭蕉柱杖)'이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네가 주장자를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주장자를 주고, 만약 네가 주장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안에 대해서 무문 선사는 본래면목인 주장자가 중형전하하며 펼쳐 보이고 있는 '체용불이'의 대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한편 과학과 공학을 불교의 체용(體用)의 원리에 비추어 이해할 수도 있다. 먼저 '체용'을 풀이하면 대체로 제법(諸法)의 체성(體性)·변하지 않는 진리(眞理)상과 작용(作用)·현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작용 또는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거나 결론을 맺을 때에는 늘 둘로 나누어 볼 수 없는 '체용불이(體用不二)'로 귀결된다.

현재 한국 이공계는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 심각한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 제 6 회 선 우 논 강 인 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참구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출가자의 기본 입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자주 모여서 법에 대해 토론하라. 그러면 정법이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우논강은 부처님 유언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탐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이에 1993년 이후 열리지 못했던 공부모임 선우논강을 아래와 같이 재개하오니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제방의 스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수행환경, 포교발전, 승풍진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 일 시 : 불기 2546(2002)년 11월 1일(금) 오후 4시 - 오후 9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 기조강연 : 고우스님 (각화사 선원장)
- 말 제 : 재연스님 (실상사 화령원)
- 대표토론 : 흥선스님 (직지사 박물관장), 세등스님 (남양주 수동재)
- 일 정 : 오후 4시 접수. 오후 5시30분 공양. 오후 6시30분 예불 및 논강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가비 : 2만원
- 준비물 : 대가사
- 문 의 :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논강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선우논강 대종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철오 스님